

2022 년 1 월 28 일

2022 년 베니스 비엔날레 호주관 전시관련 첫번째 상세 내용

DESASTRES

- The 호주 예술위원회는 알렉시 글라스 칸터(Alexie Glass-Kantor)가 큐레이션한 마르코 후지나토(Marco Fusinato)의 전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 전시 타이틀은 DESASTRES 로 2022 년 4 월 23 일부터 11 월 27 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 DESASTRES 전시는 실험적 노이즈 프로젝트로서 설치 지속적인 1 인 퍼포먼스에서 취한 이미지와 사운드를 동기화 하는 프로젝트이다.
- 아티스트는 비엔날레 오픈 기간과 시간동안, 총 200 일간, 퍼포먼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본 전시는 역사적인 지아르디니(비엔날레의 정원)에 위치한 호주 파빌리온에서 진행될 첫번째 라이브 진행형 퍼포먼스가 된다.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역 출신인 마르코 후지나토의 가족은 작가가 태어난 호주로 이민을 갔다. 그는 현재 멜버른 (나암)에서 작업과 생활을 하고 있다. 후지토는 설치, 사진 복제, 디자인, 공연 및 녹음의 형태를 취하는 현대 예술가이자 노이즈 뮤지션이다. DESASTRES 는 소음/실험 음악, 언더그라운드 문화, 대중매체속 이미지, 그리고 미술사에 대한 그의 관심의 총체적 산물이다.

연장된 COVID-19 봉쇄 기간 동안, 멜버른(나암)에서 연구한 이 작품은 이 기간동안 모두가 경험했던 분노, 비관과 혼란 같은 정서를 다룬다. 락다운 기간 동안 자택에서 고립되어 스튜디오에 접근할 수 없었던 후지나토는 DESASTRES 의 작업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소음과 침묵, 질서와 무질서, 하위문화와 제도문화, 순수와 오염과 같은 대립항 사이의 긴장감에 큰 관심이 있다. DESASTRES 에서는 이런 이분법이 공존하는데 제거하는 대신에 유지하고 싶은 마찰이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항상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동요와 모순에 대처하는 자세에 관심이 크다. 나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DESASTRES 전시는 관객을 작품의 중심인 소리와 이미지의 본능적 경험 자체이다. 후지나토는 전시장내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신호 발생기로 사용하여 이미지의 홍수를 유발하도록 대형 앰프를 통한 불협화음 노이즈, 강렬한 출력으로 즉흥적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그 결과인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경험은 청중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후지나토: “청중을 활성화시키는 나의 아이디어는 그들이 살아 숨쉬고 맥박이 뛰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내 작업은 항상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글라스 캔터: “DESASTRES 는 전통적인 전시 형식에서 탈피합니다. 정적인 전시가 아니라 진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니스에서 열리는 아르테 비엔날레 기간 내내 라이브로 제공할 것입니다. 200 일간 관객은 작품을 경험할 때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진화하는 환경의 수준은, 작업이 완전한 재앙으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속의 퍼포먼스는 연극이 아니라 노동과 인내의 행위입니다.”

베니스에서 호주를 대표하는 일은 후지나토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의 모국어이자 성장하면서 사용한 언어는 베네토 지역역에서 온 콘타니디의 베네치아 방언이다. 후지나토는 수세기동안 이어져온 구전적 전통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전한다.

후지나토: “저는 부모님이 이민 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시간의 붕괴라고 할 수 있죠.”

호주 위원회(Australia Council)는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2022 년 제 59 회 베니스 비엔날레 아르테 베네치아 국제 미술전을 위한 호주의 국가 커미셔너이다. CEO 인 **에이드리안 콜레트**(Adrian Collette AM)는 “알렉시 글라스 캔터가 기획한 본 전시는 비엔날레 아르테 기간에 관객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티스트는 DESASTRES 를 위해 특별히 ‘Score(악보)’도 창작했다. 후지나토: “Score 작업은 이미지를 소리로 인식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Score’는 명제입니다. Score 는 원고지에 전면인쇄된 DESASTRES 에 활용한 아카이브에서 선별된 이미지입니다.”

글라스 캔터: "Score의 이미지는 후지나토가 수년간 발전시켜온 광범위한 아카이브의 일부입니다. 오늘부터 호주관 전시개막까지 매일 'Score'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한다.

전시장에는 콜롬비아 대학 미술사학과 교수인 브랜든 W 조셉(Branden W Joseph)의 새로운 에세이와 마르코 후지나토와 알렉시 글라스 캔터의 광범위한 인터뷰가 실린 발간물이 함께 제공된다. 비평가이자 영화제작자인 엘리자베스 포비넬리(Elizabeth Povinelli), AI 연구원이자 작가인 케이트 크로포트(Kate Crawford),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쉘스 마르티네즈, 뮤지션/아우터 기타리스트인 서스틴 무어(Thurston Moore, Sonic Youth), 스테판 오말리(Stephen O'Malley, SUNN O)의 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발간물은 밀라노에 기반을 둔 독립출판사인 렌즈(Lenz)와 호주 위원회의 공동작업이다. 지가테스텐(Ziga Testen)과 마르코 후지나토가 함께 출판물 디자인을 담당했다.

본 전시회는 [비엔날레 대표 프로그램](#) 및 [호주관 관람 프로그램](#)을 포함한 호주 위원회의 전문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제공된다.



마르코 후지나토(Marco Fusinato)

이미지는 DESASTRES Score 의 한 페이지 발췌 *DESASTRES, 2022*

필사본 이미지의 팩스 버전(Facsimile on Edition Peters manuscript paper)

each 45.5 x 30.3cm

저작권 the artist and Anna Schwartz Gallery

- ENDS -

아시아 기반의 미디어는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캐롤 로 | 서튼 (Carol Lo | Sutton)

+852 2528 0792 | E: carol@suttoncomms.com

글로벌 미디어 문의:

알렉산드라 로스 | 서튼 (Alexandra Ross | Sutton)

+44 (0) 20 7183 3577 | E: alexandra@suttoncomms.com

호주 및 뉴질랜드 미디어 문의

클레어 마틴 | 아티큘레이트 (Claire Martin | ARTICULATE)

+61 (0) 414 437 588 | E: claire@articulatepr.com.au

고해상도 스코어 이미지 및 프로필 사진 요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Australian Government



DESASTRES 의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desastres_desastres](https://www.instagram.com/desastres_desastres)

[#ausatvenice](https://www.instagram.com/ausatvenice) [#australianpavilion](https://www.instagram.com/australianpavilion) [#biennalearte](https://www.instagram.com/biennalearte) [#auspavteam22](https://www.instagram.com/auspavteam22)

소셜 미디어 계정:

Instagram [@desastres_desastres](https://www.instagram.com/desastres_desastres)

[@AusatVenice](https://www.instagram.com/ausatvenice)

Facebook [@AusatVenice](https://www.facebook.com/AusatVenice)

작가 소개: 마르코 후지나토(Marco Fusinato)

마르코 후지나토는 설치, 사진 복제, 공연과 기록의 형식을 취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현대미술가이자 노이즈 뮤지션이다.

예술가로서 후지나토는 자신의 작품을 상호 연결된 프로젝트의 연속작업으로 여기며, 그 중 일부는 수많은 반봉의 양상을 띤다. 논문에서 증명해내는 과정처럼 그의 프로젝트는 특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거의 항상 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식체계와 문화의 영역을 종횡무진하며 후지나토는 하위문화와 제도문화, 소음과 정적,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순수와 오염과 같은 대립개념사이의 긴장과 대조를 탐험한다. 그는 형식적 태도나 사건의 강렬함에 대한 관심에 따라 우화적 차용을 활용해 역동적인 상황을 창작한다.

그의 작품은 '모든 세계의 미래'(All World's Futures) 제 56 회 베니스 비엔날레(2015); 'The Imminence of Poetics ' 제 30 회 상파울로 비엔날레(2012); 제 21 회 시드니 비엔날레, 'SUPERPOSITION(2018): Art of Equilibrium and Engagement'; 'The National 2017: New Australian Art', 호주 현대미술관, 시드니, 2017, 호주; 'Antipodean Stories, PAC: Padiglione d'Arte Contemporanea', 밀라노(2019)를 비롯해 그의 작품은 2013 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 최초의 사운드 전시회 'Soundings: A Contemporary Score'와 뉴욕 기반의 락 밴드 소닉 유스(Sonic Youth)와 콜라보레이션한 아티스트로서 유럽 박물관 순회 전시회 'Sonic Youth: Sensational Fix'(2008-2010)에도 포함되었다.

후지나토는 2006 년부터 안나 슈워츠 갤러리(Anna Schwartz Gallery)에서 정기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EXPERIMENTAL HELL(ATMOSPHERAM)' (2021 년); 'This is Not My World' (2019 년); 'Mass Black Implosion' (2017 년); 'The Infinitives' (2015 년); 'There is No Authority (2012 년); 'Noise & Capitalism', (2010 년), 'Mass Black Implosion(Treatise, Cornelius Cardew)' (2013 년), Double Infinitives (2009 년) 'The Approaching of The Disco Void-Repeated" (2006 년)에도 참여해왔다. 또한 그는 호주내 다양한 개인전과 그룹전으로 국립 기관을 포함한 미술관 및 갤러리 전시를 선보여왔다. The National: New Australian Art 전시회, 호주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시드니, 2017); Parallel Collisions 전시, 애들레이드 호주 비엔날레남호주 미술관, 애들레이드(Adelaide Biennale of Australian Art,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Adelaide, 2012); Melbourne Now 전시,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멜버른(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2013); New09 전시, 호주 현대미술센터, 멜버른(Australian Centre for Contemporary Art, Melbourne 2009); 그밖에 다수의 다크 모포 페스티벌, 호주 모나 현대미술관, 호바트(Dark Mofo, Museum of Old and New Art, Hobart, 2021, 2019, 2017, 2016, 2014)등이 있다. 2012 년에는 The Color of the Sky Has Melted 라는 서베이형 전시로 시드니의 아트스페이스(Artspace)와 브리즈번 현대미술관(IMA, Brisbane)을 선보였다.

음악가로서 후지나토는 전자 기타와 대형 앰프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파수를 즉흥적으로 사용해, 음악으로서의 노이즈(소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한다. 기념비적인 청각 조각으로 묘사되는 그의 지속적인 노이즈 기타 연주 시리즈 'Spectral Arrows'는 글래스고 국제 예술제(2012)에서 초연 공연 후 전 세계 미술관과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그는 또한 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실험적인 음악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한다. 후지나토의 첫 번째 녹음은 1996 년에 출시되었으며 수십년 동안 주로 바이닐(LP)형태로 된 많은 다양한 녹음을 발표해왔다

후지나토는 2016 년 호주 위원회의 아트 펠로우십 수상자였다.

마르코 후지나토는 안나 슈워크 갤러리 소속이다.

큐레이터 소개: 알렉시 글라스-칸터(Alexie Glass-Kantor)

알렉시 글라스-칸터는 큐레이터이자 예술계 옹호자이며 시드니 아트스페이스의 전무 이사이다. 2014 년부터 그녀는 아티스트 주도의 프로젝트를 14 개의 국가의 미술기관들과 공동 큐레이팅 해오고 있다. 2021 년에는 조나단 존스(Jonathan Jones), 언타이틀드(untitled(transcriptions of country)),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경로를 재탐색합니다.(UN/LEARNING AUSTRALIA), 서울시립미술관; 2020 년에는 탈로이 하비니 교화(Taloi Havini Reclamation), 다카 아트 써밋(Dhaka Art Summit); 2020 년 멜 오'캘러헌(Mel O'Callaghan), 센터 오브 센터(Centre of the Centre), UQ 미술관(UQ Art Museum); 2019 년 르 콩포 모데른 아트 센터(Le Confort Moderne), 안젤리카 메시티(Angelica Mesiti), 릴레이 리그(Relay League) 및 아트 선재, 2018 년에는 쿤스트할레 트빌리시(Kunsthalle Tbilisi), 조지아(Georgia); 헬렌 존슨(Helen Johnson), 런던 현대 미술관(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ICA); 2015 년 니콜라스 망간(Nicholas Mangan), 앵션 라이츠(Ancient Lights), 런던 치센헤일 갤러리(Chisenhale Gallery)를 포함한다.

2017 년 그녀는 52 인의 작가 52 개의 액션(52 ARTISTS 52 ACTIONS)를 구상했으며, SNS 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실천과 예술로서의 행동을 조사했습니다. 2015 년부터 그녀는 홍콩 아트 바젤 엔카운터스(Encounters for Art Basel | 대규모 설치 섹션)의 큐레이터를 맡아오고 있다. 글라스-칸터는 페러렐 콜리전스(Parallel Collisions)의 나타샤 벌록(Natasha Bullock)과 함께, 12 회 애들라이드 현대미술 비엔날레(Adelaide Biennial of Contemporary Art)와 뉴멕시코의 13 회 SITE SITE 산타페 비엔날레(SITE Santa Fe Biennial)의 큐라토리엄에서 공동 큐레이터를 맡았다. 글라스-칸터는 호주 현대미술 기구 (Contemporary Art Organizations of Australia)의 의장이며 현재 맡고 있는 이사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국립 아트 스쿨, 아카데미 이사회, 시드니; 현대미술과 디자인 미술관, 베닐 라 살 대학교, 자문 위원회, 마닐라; 모네시 대학교 큐레이토리얼 박사 프로그램(Monash University Curatorial PhD Program), 심사위원, 어드밴스 글로벌 아트 어워드(Advance Global Awards). 그녀는 공공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참여하며 호주 전역과 국제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술상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호주 위원회(Australia Council) 소개

호주 위원회는 호주정부의 주요 예술 투자, 개발과 자문 기관이자 베니스 비엔날레의 호주 커미셔너이다. 본 조직의 목적은 호주 예술과 창의성을 옹호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호주 위원회는 예술을 창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수상, 펠로우십 및 동료 평가 지원금 등을 통해 예술과 조직에 투자한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호주 국가관은 1954 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40 명의 저명한 현대 시각 예술가들이 호주 깃발 아래 전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왔다. 마르코 후지나토와 알렉시 글라스-칸터는 호주관 내에서 호주를

보여주는 41 번째 팀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프로젝트에서 호주는, 파빌리언 내의 국가급 참여, 일련의 전문개발 기회 및 프로젝트의 실현을 지원하는 공동 투자 캠페인을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는 본 위원회의 국제 참여 전략 2021-2025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호주 국가관(Australian Pavilion) 소개

덴톤 코커 마셜(Denton Corker Marshall)이 디자인해 수상경력에 빛나는 호주 파빌리언은 2015 년에 개관했다. 무루와리 원주민(Muruwari)의 매튜 도일(Mathew Doyle)이 국가관 개관식을 위한 향 피우기 의식을 주도했다. 파빌리언은 지아르디니 델라 비엔날레에 지어진 최초이자, 현재로서 유일한, 21 세기 영구 건축물이다.

호주관의 형태는 최대한 심플하게 설계되었다. 건축가는 그것을 "검은 상자 안의 흰색 상자, 기존 풍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현장에 배치"라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의 큰 석판은 건물의 어두운 외관을 구성한다. 일부 패널을 접으면 깨끗한 흰색 내부가 드러나고 내부에 자연광이 유입된다. 이 돌출된 패널은, 전시회가 개최될 때 건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호주 파빌리언은 비엔날레 정원에 있는 단 29 개 국가관 중 하나이며, 모두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건축되었다. 호주관의 개발은 당시 위원인 사이먼 모던트(Simon Mordant AM)와 호주 위원회가 함께 주도한 민관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필립 콕스(Philip Cox)가 임시로 설계한 원래의 국가관은 1988 년에 개관 했으며 신관이 오픈하기까지 22 인의 예술가를 소개했다.